

보도시점 2026. 8. 11.(화) 11:00
2026. 8. 12.(수) 조간

배포 2026. 8. 11.(화) 06:00

국립종자원,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PSA) 2026 품종보호 자문회의 서울 개최

- 아시아·태평양 15개국 정부·종자업계 전문가, 품종보호 현안과 협력방안 논의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이하 ‘APSA’)와 함께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명동 호텔’에서 ‘APSA 2026 품종보호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APS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량종자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1994년에 설립된 종자산업 협력기구이다. 종자기업·협회·정부기관 등을 연결해 우량종자의 생산과 교역,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2001년 정부기관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집행위원회 활동 등 지역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APSA 품종보호 자문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품종보호제도의 조화로운 운영과 협력을 위한 회의로서 2024년 태국 방콕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025년 일본 도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행사이다.

이번 회의는 국립종자원, 미국 농무부(USDA), 미국종자무역협회(ASTA) 등이 공동 개최하며,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15개국 정부기구 및 각국 종자협회,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국제종자연맹(ISF) 등에서 11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 첫날에는 품종보호제도의 과제와 기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에 따른 구별성·균일성·안정성(DUS) 심사 협력을 논의하며, 둘째 날에는 육성자권과 농부권의 조화, 기본유래품종(EDV)의 개념,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추진 현황, 각국의 품종보호권 침해 등 품종보호의 주요 법·제도적 쟁점을 다룬다.

국립종자원은 한국의 품종보호제도, 분자마커 기술,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절차를 발표하는 등 품종보호제도 운영 경험과 심사 전문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 회의는 각국의 제도와 현장 사례를 비교하고 실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품종보호제도 운영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품종보호는 육종가의 창의적 성과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종자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핵심”이라고 하며,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한국의 품종보호제도와 심사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권리보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APSA 품종보호 자문회의 사진

2.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sia and Pacific Seed Alliance)

3. 2026 품종보호 자문회의 주요 의제

담당 부서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책임자	과장	양미희	(054-912-0200)
		담당자	농업연구관	장준연	(054-912-0201)

붙임 1 APSA 품종보호 자문회의 사진



붙임 2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sia and Pacific Seed Alliance)

☐ **설립 목적 및 주요 활동**

- 1994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덴마크 국제개발협력기구(DANIDA)의 협력으로 설립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종자기업, 종자협회 및 정부기관 등을 연결하는 지역 종자산업 협력 네트워크로 우량종자의 생산과 교역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미션으로 함
- 아시아 종자 총회, 세미나 및 포럼, 현장견학,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지역 내 국가의 종자 수출입 관련 정책, 규제 및 현안 문제들을 공유해결 지원

☐ **회원 및 사무국**

- 58개국 641개 회원사기관·단체가 참여하며, 사무국은 태국 방콕 소재
- 한국 회원은 국립종자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종자협회 및 국내 종자기업 등 30개 기관·기업

* 국립종자원은 2001년 4월 1일 정부 종자기관 회원으로 가입

☐ **주요 조직**

- (집행위원회) APSA의 예산사업과 지역 종자산업 주요 현안을 심의·관리
- (상임위원회) 국제무역·검역, 종자기술, 식물육종혁신, 지식재산권 및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 운영
- (특별관심그룹) 발작물, 종자생산, 채소·화훼, 채소·화훼 그룹 산하 R&D 자문그룹 등 실무그룹 운영

☐ **품종보호 분야 활동**

- 지식재산권 및 생물다양성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 품종보호 심사,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협약 이행, 육성자·농업인 권리,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등을 논의
- 2024년 태국, 2025년 일본에 이어 2026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

붙임 3 APSA 2026 품종보호 자문회의 주요 의제

□ 일자 및 장소

○ 2026.8.11.(화) ~ 8.12.(수),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명동 호텔

□ 주요 의제

구분	주요 의제
(1일차) 구별성·균일성· 안정성(DUS) 중점 논의	환영사 (양주필 원장, 국립종자원)
	한국의 품종보호제도 (조용현 심사관, 국립종자원)
	식물신품종 심사기술의 혁신 (김동선 유전자분석팀장, 국립종자원)
	신품종의 시장 도입: 산업계의 과제와 기대 (Ha Nguyen 박사, Bayer CropScience 종자 규제업무 총괄 및 APSA 지식재산권·생물다양성 상임위원회 위원장)
	DUS 시험에 관한 국가별 발표
	UPOV 협약에 따른 DUS 심사 협력 (Yoshiro Nishimura 박사, UPOV 아시아지역 기술담당관)
	분임토의 및 그룹 활동: 아시아 DUS 보고서 교환 경로 설계
(2일차) 식물품종보호-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EDV) 중점 논의	UPOV 협약상 육성자권과 농업인 권리의 공존 체계 (Lorelei Garagancea 박사, 국제종자연맹(ISF) 지식재산 및 유전자원 법무이사)
	패널토론: 육성자권과 농업인 권리
	기본유래품종(EDV) 개념 재정리 (Lorelei Garagancea 박사, 국제종자연맹(ISF) 지식재산 및 유전자원 법무이사)
	기본유래품종(EDV)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유전적 유사성 기준값 설정 전략 (Emerson Limberger, Corteva Agriscience)
	UPOV 협약상 기본유래품종(EDV) 및 2023년 UPOV EDV 설명서 (Martin Ekvad 박사, UPOV 법무국장)
	일부 국가의 UPOV 협약 가입 추진현황 간략 보고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분쟁 절차 (이광홍 연구사,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권 침해 쟁점 및 해결 메커니즘 (인도, 필리핀, 중국, 파키스탄, 태국, 일본)